



# LA IP-Desk Newsletter

Vol. 139

2023년 10월

## News Focus

### 지식재산권 법과 충돌하는 소비자 권리 법안 현황



안녕하세요 KOTRA LA IP-DESK 백 서른 아홉 번째 뉴스레터입니다.

선선한 가을을 넘어 겨울로 다가가는 10월의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주까지는 여름 못지않은 더운 날씨가 지속되다 이번 주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월에는 안타까운 전쟁 소식이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발발한 전쟁이 거의 2년이 되어가며 세계인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전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사상 초유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본 공격으로 안타까운 1,400명 이상의 목숨이 빼앗기고, 하마스는 220여 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대상으로 보복 공습을 감행했는데 가자 지구 내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는 5,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집을 잃은 이들은 14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인의 사망 소식이 계속해서 접수되며 세계인의 안타까움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인질을 구출하며, 하마스의 파괴를 위해 지상전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스라

엘 국방부 장관은 “한달, 혹은 두 세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끝엔 하마스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마냥 평화롭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겪었던 전쟁의 참담함 때문에 더욱 그러한지,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가지 정치적 이유로 벌어지고 있는 험난한 전쟁통에서 일반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 각 국가에 빠른 평화가 찾아오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며, 다음 뉴스레터에는 전쟁이 종식되었다는 인사말을 쓸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며, 백 서른 아홉 번째 뉴스레터를 전달해 드립니다.



## 2023년 한-미 지식재산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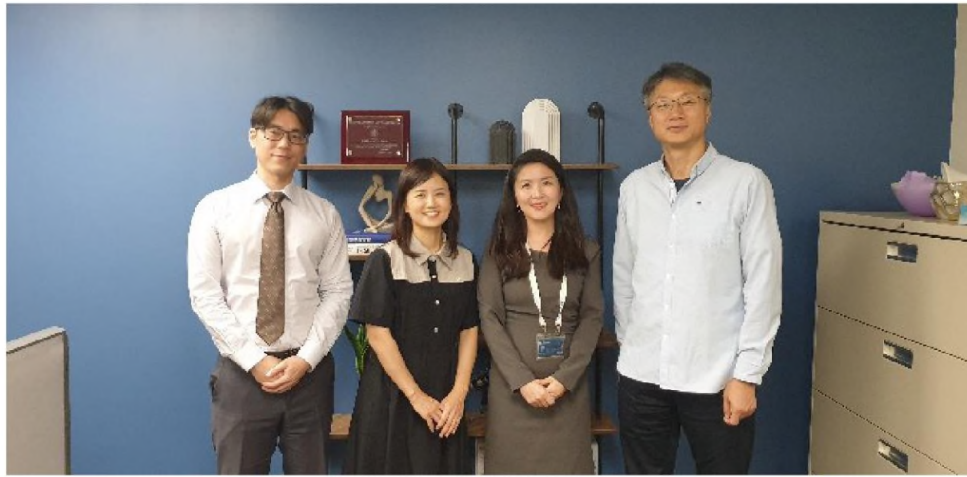


[10월 11일(수) 한-미 지식재산 포럼 참석자 단체 사진]

KOTRA LA IP-DESK는 지난 10월 11일(수)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2023년 한-미 지식재산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주미대사관, 한국 특허청, NY IP-DESK와 PCT KOREA가 함께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 미 양국 특허청의 이인실 특허청장님과 Kathi Vidal 특허청장님이 직접 축사를 전달하며, 양국 간의 단단한 지식재산 협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가득했던 이번 행사는 미국 특허청 방문 및 투어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한국 저작권위원회 업무 회의



[10월 17일(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LA IP-DESK]

지난 10월 16일, 17일 양일에 걸쳐 KOTRA LA 무역관에서 LA IP-DESK와 한국저작권위원회와의 업무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내 콘텐츠 기업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위한 현지 지재산 확보와 관리, 미국 내 침해 사안 등을 다루며, IP-DESK의 노하우와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저작권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알아보는 등 두 차례에 걸친 심도깊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저작권 위원회와 LA IP-DESK 간의 효과적인 업무 협업을 기대합니다.

---

---

## Intellectual Property Trends

### 지식재산권 법과 충돌하는 소비자 수리권 법안 현황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0월 10일 화요일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Right to Repair Act, S.B. 244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뉴욕과 미네소타에 이어 전자제품 Right to Repair 법안을 통과시킨 미국의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동향에서는 Right to Repair 법안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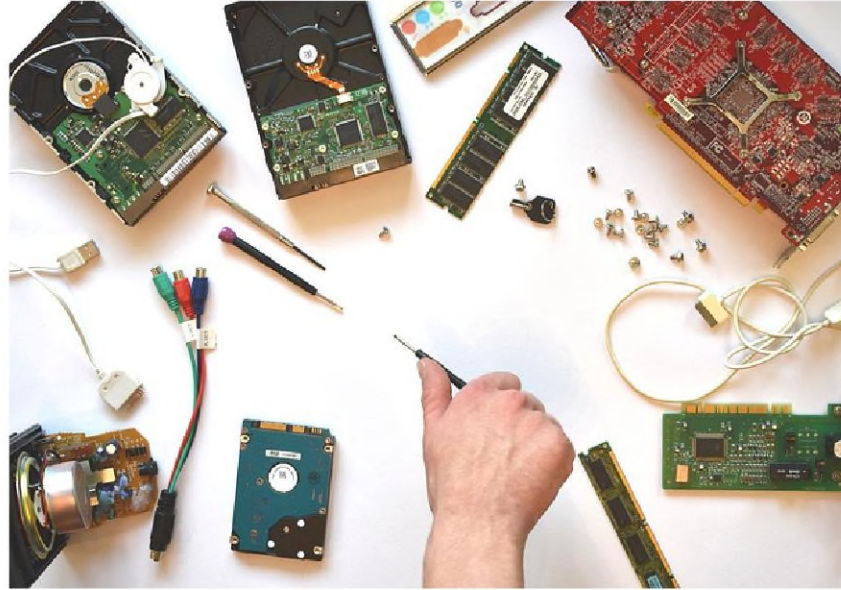


#### Right To Repair

##### I. Right to Repair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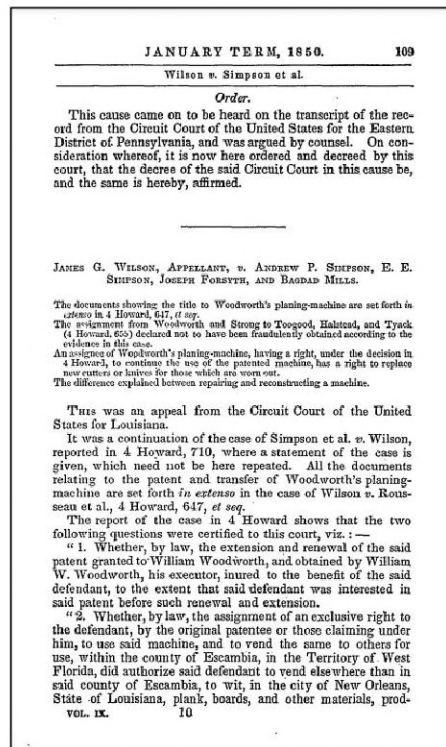
Right to Repair는 “수리권”을 일컫는 용어로 자동차, 전자제품, 농기구 등의 제품을 자유롭게 개조 혹은 수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제조사의 서

비스만을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조건이나, 수리와 개조에 필요한 부품에 대한 접근의 제한, 또는 소프트웨어 장벽 등에 대하여 형성된 권리입니다.



수리권에 대한 논쟁은 유럽 연합, 인도,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으며, 여러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수리권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사회적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IT 자산처분(information technology asset disposition)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수리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유엔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적으로 5,360만 톤 이상의 전자 폐기물이 발생했으며, 이 중 17.4%가 재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미국 연방 의회에도 영향을 미쳤고, 특히 OEM 업계는 일반인들도 전자 제품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도구, 정보 및 부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극 지지했습니다.

미국에서 "수리권"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800년대 특허법으로부터입니다. 미 대법원은 1850년 *Wilson v. Simpson* 케이스를 통해 "수리권"은 "모든 사람이 그가 소유한 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권리라고 판단하며 해당 사건의 쟁점이었던 특허 기계 중 특허를 받지 않은 절단날 부품이 대체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미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기계의 사용성을 회복시키는 정도의 "허용적 수리"와 전혀 다른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 특허를 침해할 수 있는 "비허용적 재구성"에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주목하며 수리권의 허용 범위에 대한 논쟁을 마무리하지는 않았습니다.



[1850년 Wilson v. Simpson 특허 침해 소송 미국 대법원 판결문]

## II. 현대의 Right to Repair 논쟁

미국의 특허 소진원칙에 따르면, 허가된 판매를 통해 특허권자가 특허 기계의 사용에 타인을 배제하는 권리를 "소진"했기 때문에 특허 기계의 소유자/구매자는 해당 기계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를 발명할 수 있는 권리를 소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허 기계의 소유자/구매자가 새로운 기계를 재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특허 기계의 법적 소유자는 단순히 특허를 받지 않은 부품이 고장났을 때만 이를 대체할 수 있을 뿐, 이를 엄밀히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1998년 미 의회는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또는 DMCA)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전자 제품의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으로 미 연방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개인 또는 사설업체가 전자제품을 수리하거나 개조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파괴하거나 우회할 경우 제조업체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리권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뒤, 2013년 설립된 디지털수리권연합 (Digital Right to Repair Coalition)은 독립 수리기술자, 환경단체, 애프터마켓 등 수리와 개조에 관련된 협회로서 한번 구매된 제품은 일반소비자도 자유롭게 개조 혹은 수리할 수 있는 수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보, 부품과 장비, 수리 및 재사용을 위한 잠금해제, 재판매 허가, 수리 가능한 제품 설계 등의 소비자 수리권 사항을 주장했습니다.



2021년 7월 미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전자 제품 수리 시장의 “불공정하고 반경쟁적 규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고, 연방거래위원회는 “불법 수리 제한에 대한 조사를 우선시하겠다”고 약속하는 정책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제조업자들이 소비자의 특정 부품과 서비스 사용에 대한 보증 조건을 거는 것을 금지하는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에 의거 몇 가지 조치를 취했으나, 연방정부가 지식재산권자들에게 부여한 경쟁자 배제권을 제한할 만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한편 올해 미 하원의회 지식재산권 소위원회 의장 대럴 이사(Darrell Issa)는 기업이 수리에 필요한 독점 정보를 강제 라이선스 제도 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필수 저작권” 제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지난 3월 대럴 의장이 소개한 The SMART Act는 미국 디자인 특허법을 개정해 자동차 제조사가 대체 부품 공급업체를 상대로 펜더, 쿼터패널, 문 등 충돌 수리 부품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강제할 수 있는 기간을 15년에서 2.5년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미국 의회에 The SMART Act를 제안한 하원의회 지식재산권 소위원회 대럴 이사 의장]

수리권을 둘러싼 법률적 견해는 다양하나 지식재산권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법률전문가는 “수리권”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리권 자체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권리이며, 오히려 지식재산권이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수리권 운동은 기존 법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권자의 기존 권리를 희생시켜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형태라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럴 의장의 법안과 수리자유법(Freedom to Repair Act)은 저작권법과 특허법을 새로 쓰는 수준이고, 수리법(REPAIR Act)과 공정수리법(Fair Repair Act)은 지식재산권의 정상적인 행사를 연방거래위원회가 시행할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을 규정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미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를 방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수리권 강화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이며, 그 이유는 지식재산권자들의 합법적인 권리 행사가 반경쟁적인 권리 행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III. 캘리포니아의 새 수리권 법안**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수리권 법안 SB 244는 2019년 처음으로 제안되었으며 오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제조업체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모든 제품 소유자와 수리업자에게 수리에 필요한 문서, 부품, 공구 등을 제공함으로써 전자제품과 가전제품의 진단, 유지, 또는 수리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조업체는 또한 보증 기간에 관계없이 50 달러에서 99.99달러 사이의 제품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100달러 이상의 제품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최소 7년 동안 문서, 부품 및 공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수리권 법안 S.B. 244를 승인한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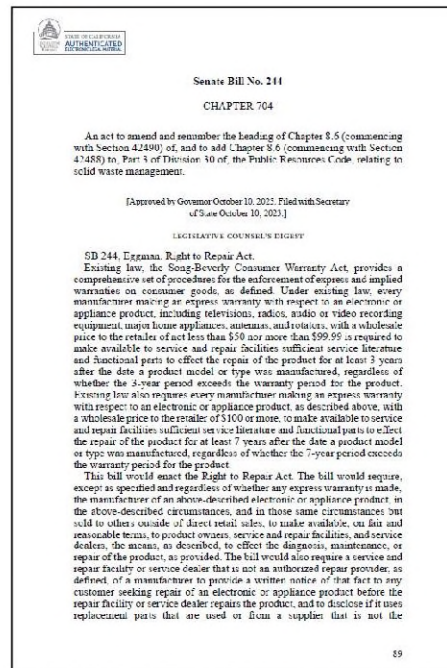
이 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최초로 제조 및 판매 또는 사용된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및 각종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2023년 7월 1일 이후 판매 또는 사용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뉴욕의 수리

권 법과 차이를 보입니다. 미네소타의 법과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법은 학교, 기업, 지방 정부 및 기타 소비자 직접 소매 방법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 카운티 또는 주 자체가 잠재적 위반을 제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잠재적 위반자에게는 첫 번째 위반 시 하루 1,000달러의 벌금, 두 번째 위반 시 하루 2,000달러의 벌금, 이후 모든 위반에는 하루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새 법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i) 농림, 산업 및 건설 산업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를 포함한 모든 장비 (또는 장비용 수리 부품), (ii) 비디오 게임기 및 (iii) 화재경보기를 포함한 경보 시스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조업체는 도난 방지 보안 조치를 비활성화하거나 무효화하는 문서, 부품 및 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제조업체가 부품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거나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수리 공급업체가 제공할 경우 제조업체는 서비스 부품을 판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간접적, 부수적, 특별한 또는 결과적 손해를 포함한 제3자 수리 시설 또는 소유자가 수행하는 수리, 진단, 유지 또는 수정 중에 발생하는 손상 또는 상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제조업체를 보호합니다.

셋째, 간접적, 부수적, 특별한 또는 결과적 손해,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또는 이익손실, 그리고 제품의 사용 불능 또는 기능 저하를 포함한 제3자 수리 시설 또는 소유자가 수행하는 손상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제조업체를 보호합니다.



[10월 10일 승인된 캘리포니아 Right to Repair Act, S.B. 244]

#### **IV. 캘리포니아 Right to Act 법안을 둘러싼 두 가지 목소리, 그리고 시사점**

캘리포니아의 새 수리권법안은 미 연방 저작권법 및 특허법과 충돌의 여지가 있어 최고권 조항(Supremacy Clause)에 의거하여 위헌 여부가 우려됩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자들은 실용특허, 디자인 특허 혹은 저작권 등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그리고 저작물에 무단 접근을 방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제공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부분은 미국 연방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 정부는 제조업체에게 해당 정보 혹은 기술공유를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의 주 법은 “연방 의회의 완전한 목적과 목적 달성과 실행에 장애물로 작용”할 경우 연방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일각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수리권 법안이 미 의회와 미 대법원이 오랫동안 보호해온 지식재산권자들의 권리와 충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자는 보호기간 동안 판매 거부 및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리를 갖고 있는데, 새로운 법안은 이를 강제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리권 운동과 새로운 수리권 법안을 향해 우려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바, 대부분의 전자 폐기물 업체는 본 수리권 법안이 업계뿐 아니라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권 법안이 전자제품 수리 서비스의 양질의 부품과 안정성 높은 가이드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애플도 새로운 수리권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애플은 새로운 수리권 법안이 전자 폐기물의 발생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까지 애플은 사설업체에 수리받은 애플 전자 제품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애플이 이러한 부분에 대응할 것인지와 저작권법과 특허법으로 보호받는 자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21세기 인류는 분명 그 어느 때 보다 다양하고 많은 전자 기기를 사용하며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수리권은 분명 소비자들이 구매한 전자 제품을 오랫동안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전자 폐기물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과도한 수리권의 팽창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제품 발명과 기술 혁신에 브레이크로 작용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전자 제품을 제조하거나 또는 사설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향후 수리권 법안의 방향을 잘 살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원:

1. Apple backs Biden's push for right-to-repair law (<https://www.reuters.com/technology/apple-make-tools-parts-fix-phones-computers-available-nationwide-white-house-2023-10-24/>) 10/24/2023
2. Right to repair becomes law in California (<https://www.recyclingtoday.com/news/right-to-repair-becomes-law-in-california/#:~:text=Effective>) 10/16/2023
3. California Senate Bill No. 244 Chapter 704 Right to Repair Act. [Approved by Governor October 10, 2023. Filed with Secretary of State October 10, 2023.] (<https://legiscan.com/CA/text/SB244/id/2845333>)
4. The IP Law Problem with California's New Right to Repair Act (<https://ipwatchdog.com/2023/10/09/the-ip-law-problem-with-californias-new-right-to-repair-act/id=168007/>) 10/9/2023
5. Apple backs California right-to-repair bill in major policy shift (<https://www.cnbc.com/2023/08/24/apple-backs-california-right-to-repair-bill-in-major-policy-shift.html>) 8/24/2023
6. House IP Subcommittee Mulls Copyright and Design Patent Revisions Amid Right-to-Repair Debate (<https://ipwatchdog.com/2023/07/18/house-ip-subcommittee-mulls-copyright-design-patent-revisions-amid-right-repair-debate/id=163727/>) 7/18/2023
7. A growing right-to-repair movement (<https://www.recyclingtoday.com/news/professionals-weigh-in-on-right-to-repair-impacts-itad/>) 12/23/2021
8. Right-to-repair rules are now the law in Minnesota (<https://www.theverge.com/2023/5/24/23736326/minnesota-right-to-repair-laws-passed-electronics-free-documentation>) 5/24/2023

9. New York State Enacts the First Right-to-Repair Law  
([https://today.westlaw.com/Document/Ia4f2fe0c92a511ed8636e1a02dc72ff6/View/FullText.html?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text=New%20York%20State%20enacted%20the,up%20to%20%24500%20per%20incident.\)](https://today.westlaw.com/Document/Ia4f2fe0c92a511ed8636e1a02dc72ff6/View/FullText.html?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text=New%20York%20State%20enacted%20the,up%20to%20%24500%20per%20incident.))  
1/13/2023

10. Wilson v. Simpson, 50 U.S. 9 How. 109 109 (1850)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50/109/>)

---

---

## SERVICES

### 지식 재산권 상담

- 미국 지재권 확보 및 보호 관련 지재권 상담 수시 지원: 전화, e-mail, 내방 및 현지 출장
- 미국에서 우리 기업이 피소되거나 경고장이 접수 되었을 경우, 초기 대응 가이드라인 제시

### 정보 지원 서비스

- 지재권 관련 법률 정보 제공
- 지식 재산권 설명회/세미나 개최
- 미국 지재권 변호사 DB 구축 및 제공

### 해외 지재권 비용 지원 서비스

- **상표 출원 비용 지원 서비스:** 2023년 신청접수 기간 마감 (\*\*신청서 160건 접수시 신청접수 기간 조기 마감되며, 정량 평가 순위대로 80건 지원)
- 기업당 연간 5건: 소요비용의 최대 50%, 건당 \$600 이내 지원
- **법률 비용 지원 서비스:** 2023년 신청접수 기간 마감 (지재권 분쟁(침해·피침해) 발생 또는 발생 예측 시 법률의견서 작성비용)
- 해외 수출 등에서 발생하는 현지 지재권 분쟁 위험 예방을 위한 법률 의견 작성 비용 지원(특허침해분석(FTO),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등 수출시 지재권 분쟁예방 조문 검토 등)
- 기업당 연간 2건: 중소기업 - 소요비용의 최대 70%, 건당 \$10,000 이내 지원, 중견기업 - 소요비용의 최대 50%, 건당 \$10,000 이내 지원
- **지원방법:**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가능

### 이동식 IP-DESK

- KOTRA 참가 한국 전시회에 이동식 IP-DESK 설치
- 사전 설명회 개최 및 참가 기업 상담 제공

---

## CONTACT

E mail: [laipdesk@kotra.or.kr](mailto:laipdesk@kotra.or.kr)

Tel: +1-323-954-9500 Ext. 142

Fax: +1-323-954-1707

Youtube: <https://www.youtube.com/kotralaipdesk>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laipdesk>

---

This material is distributed by KOTRA on behalf of th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dditional information is available at the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C.